



# 세상을 이기는 승리

---

요한일서 5:3-5

# 요한일서 5:3-5

3.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정서)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한다.

#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적 세계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다스림의 위임받은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눅4:5-6).
-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요일5:19)
-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나, 우리; 요3:16)

#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짐승

-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을 잘하려면 목숨을 건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 고대의 짐승
  - 요한계시록은 끔찍한 박해를 견디던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이다(AD90-95).
  - '로마 제국' - 문화, 경제, 교육, 군사, 법에 의한 강력한 영향력. 이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함.
- 오늘날의 짐승
  - '글로벌 문화' - 경제 시스템, 기술문명,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강력한 문명.

# 강력한 세상의 유혹

-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비롯된다. 많이 가질 수록 행복하다.
-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
- 삶의 안전은 돈과 권력, 지위, 건강에 있다.
- 그 무엇보다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세속화).
- 기독교는 여러 영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종교 다원주의).
- 절대적인 도덕 규범 같은 것은 없다. 진리라고 믿는 것은 뭐든 진리가 될 수 있다.
- 자기 자신(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 다른 것은 관심 없음.
-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 새로운 신앙의 해독제가 필요하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도 짐승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현재 1세기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짐승이 만든 문화 안에서 살고 있다. 짐승이 형성한 사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운전하고,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학교에 다니고, 쇼핑하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음악을 듣고,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짐승의 불꽃이 타오른다.

짐승의 불꽃이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이나 불신앙, 아집, 완고함, 거역하는 마음이다.”

-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문화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 기존의 양육과 신앙 교육이 아닌 '무너진 영적 생활을 바로 잡고 삶의 모든 면까지 구석구석 파고들 수 있는 해독제'가 필요하다.
-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contemplative spirituality)'이 바로 해독제이다.

# 건강한 정서와 영성으로 통합

- 건강한 정서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자신의 감정을 명명하고, 인식하고, 다룬다 –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적극적인 동정심을 가진다.
-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트고 이어간다.
- 자신을 망가뜨리는 감정 패턴에서 도망쳐 나온다.
-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한다.
- 생각이나 감정을 말 또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한다.
- 사람들을 내 의도대로 바꾸려 하기보다(조종)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 자신의 필요나 요구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공손하게 요청한다.

-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 약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타협점을 찾아 성숙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배운다.
- 자신의 성과 성적 욕구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표현한다.
-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다.



- 관상적 영성이란 전통적인 활동과 관심들에 맞춰져 있다. – 초대 교부들의 묵상법
-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사랑의 눈길” – 로렌스 형제
-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순전한 생각, 사랑하는 마음, 지속적 관심” – 프랜시스 드 살레
-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사랑에 복종한다.
-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일에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한다(의도적으로).
-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을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받아들인다.
- 침묵, 홀로 있음, 항상 기도하기를 훈련한다.
-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어 인식한다.

-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향해 가는 변화의 여정임을 이해한다.
  -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의 참 정수(true essence)를 발견한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 삶의 모든 면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아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으로 발전시킨다.
  -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영성의 전통을 현재와 잘 접목 시킨다.
  -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 보다 기독교적인(경건한) 삶을 산다.
  -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헌신하며 산다.
- 
-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이 통합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